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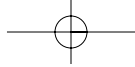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 칼빈의 범신론적 대적(對敵), 안드레 오시안더

## 1. 서론

성경에는 물론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저서에는 ‘범신론’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이 단어가 18세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배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질타한 내용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대적들을 비판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범신론적인 내용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칼빈의 저서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범신론적인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칼빈이 로마가톨릭을 비판할 때 ‘미신적’이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함을 본다.

‘범신론’이란 ‘만물이 곧 신(神) 곧 신은 우주의 내재적 원리로서 세계 안에 있으며 신은 세계 안에 있고 세계는 신 안에 있으며 신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세계관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방식과 연관해서 ‘범신론적’이라는 말은 우주만물을 해석할 때 신(神)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철학사는 자연인의 사고방식이 유물론적, 범신론적, 이원론 사고방식으로 형성되었음을 가르친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할 때 이 세 가지 사고방식으로 타락했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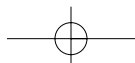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어떤 점에서 신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정상적인 데로 인도함을 살피는 일이다. 동시에 칼빈이 이런 범신론적 대적을 어떤 방식으로 비판했는지도 우리의 관심사이다.

오시안더(A. Osiander)는 1498년 12월 19일에 태어나서 1552년 10월 17일에 사망했다. 그를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나 1564년 5월 27일에 타계한 칼빈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시대에 일했으나, 약간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나 범신론의 오류에 빠진 전형적인 인물이다. 칼빈의 경우 범신론적인 대적은 오시안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또는 범신론적인 오류에 빠진 오시안더의 신학을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제는 한국교회에 어떤 의의가 있을까? 한국인의 사고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범신론적인 샤머니즘일 것이다. 복음이 한반도에 전파 되었어도 샤머니즘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의해 삼킨바 되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범신론적인 사고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교의 구원론을 오시안더의 신학체계로 해석하면 매우 정확하게 분석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오시안더의 구원론을 통해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참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시안더의 제1차 사료를 구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오시안더를 비판한 내용에 근거해서 그를 분석하고, 나아가 칼빈이 그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고, 19세기에 오시안더를 비판한 에드워드 벨의 비판과 비교하여 칼빈의 비판을 평가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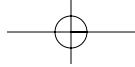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 2. 칼빈의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론 비판

### 1) 칼빈의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 이해 해석과 비판

칼빈은 지적하기를 오시안더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형상을 인간 속에 두었는데, 아담이 비록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Inst.* 1.15.3). 이 아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아담의 육체적 외모의 표본(*Vorbild*)과 전형(*Urbild*)이었음을 뜻한다(*Inst.* 1.15.3).

오시안더의 성육신 이해는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육신(肉身)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오시안더의 논리에 의하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서 육신이 되었어야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신은 불순종이 범해진 바로 그 육신이다. 이것은 타락 전 아담에게는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칼빈은 이런 점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칼빈은 오시안더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목하고 비판하기를 영원한 말씀이 성령보다 순서상 우선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령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성자와 성령 사이엔 구별이 없어진다고 보고 나아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어떤 특징과 모양으로 유사한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Inst.* 1.15.3). 말하자면 삼위일체론적으로 보아도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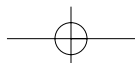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또 칼빈은 오시안더의 주장을 비판하며 지적하기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인간의 일부분 곧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영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진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이다”(Inst. 1.15.5)라고 했다. 즉 오시안더는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하나님 형상의 본질로 본다는 뜻이다.

칼빈은 오시안더가 하나님 형상을 너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오시안더를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하나님 형상 이해를 간단히 열거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형상의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Inst. 1.15.4).” 즉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영적인 그 무엇이라는 말이다. 칼빈의 이런 하나님 형상 이해는 뒤에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칼빈이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 이해를 비판했을 때 이미 자신의 독특한 하나님 형상 이해가 정리되어 있었다.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형상 이해의 핵심은 다 음과 같다. 그는 하나님 형상을 거울에 비유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으며 그것이 반사하는 내용은 지식, 의, 그리고 거룩이다(Inst. 1.15.4).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범신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인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독일 개혁파 신학자 에드워드 뵐(Eduard Böhl)도 그의 여러 저서에서 구원론 부분에서 오시안더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범신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오시안더를 비판했다. 뵐의 하나님 형상 이해도 칼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단지 그는 ‘상태 개념’을 하나님 형상 개념에 사용하여 설명했다. 즉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잘 반사할 수 있는 원시 상태에 있었는데, 뵐은 이것은 ‘하나님 형상의 상



태'로 표현했다(Ed. Böhl, *Dogmatik. Darstellung der christlichen Glaubenslehre auf Reformiert-kirchlicher Grundlage*, Amsterdam: Scheffer, 1887, 156ff). 빛의 경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형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 이 상태는 영혼과 몸 둘 다 포함하기 때문에 몸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오시안더의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빛은 하나님 형상론에서 오시안더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온통 이신칭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칭의론에서 오시안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론과 성육신론과 칭의론을 꿰뚫으면서 오시안더의 범신론적인 요소를 간파한 칼빈이 더 총체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는 오시안더 하나님 형상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범신론적인 '하나님 본질' 개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 2) 칼빈의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로서 하나님 형상 이해 해석과 비판

칼빈은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 개념 속에 범신론적인 요소가 들어 있음을 간파한다. “인간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은 본질적인 의(義)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 마치 만일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영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Inst. 1.13.5).”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런 하나님 형상 이해가 결국 마니교의 범신론적

인 유출설 오류와 동일함을 지적했다. 사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세르베투스과 마니교의 유출설에 대해 논했다. “그들은 마치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이 어느 부분이 사람 속에 전해지더라도 한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Inst.* 1.15.5).” 즉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더의 경우 본질적인 의(義)가 인간에게 주입(注入)되어야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뜻이다.

칼빈은 이들을 비판하기를 만일 유출설(流出說)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파렴치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할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와 격동 뿐 아니라, 무지와 악한 욕망과 연약함과 온갖 유익의 악한 것들”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Inst.* 1.15.5).

나아가 칼빈은 오시안더가 성령의 역할을 간과한 결과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칼빈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은 본체의 유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다. … 성령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드시지 않는다(*Inst.* 1.13.5).” 오시안더의 경우 이 ‘하나님 본질’은 그의 칭의론에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 대한 그의 설명이 신학을 파악하는데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결국 오시안더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함을 말할 뿐, 오시안더의 오류가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자아낸 결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칼빈은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 개념 속에 범신론적 내지 존재론적인 요소가 있음을 감지한다. “오시안더는 하나님 형상

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비로소 처음 바로 보았다고 생각한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주어진 비상한 재능들 속에서 빛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다(*Inst.* 2.12.6).” 벨이 이 구절을 비판했다면 이 용어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비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칼빈이 안드레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론을 비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오시안더에 의하면, 아담은, 성부의 경륜에 의해 정해진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을 것이다(*Inst.* 2.12.6).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다.

② 오시안더는 하나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주어진 비상한 재능들 속에서 빛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다(*Inst.* 2.12.6).” 이에 대해 칼빈은 ‘관계적인 하나님 형상관’으로 ‘존재론적인 형상관’을 비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인간의 존엄성의 최고의 완전함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창 1:27) 곧 창조주께서 자기의 영광이 사람 안에서 마치 거울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기를 뜻하셨다는 것이다(*Inst.* 2.12.6).”

유감스럽게도 칼빈은 존재론적 그리고 범신론적인 하나님 형상 개념이 어떤 문제를 야기(惹起)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16세기라는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3) 칼빈의 오시안더의 성육신론 해석과 비판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더의 하나님 형상 이해는 그의 성육신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2권에서 성육신을 다루면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 다시 논했는데, 이는 오시안더의 잘못된 ‘하나님 형상론’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오시안더의 경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칼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를 구속(救贖)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함으로써(*Inst.* 2.12.4) 오시안더의 주장 곧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성육신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Inst.* 2.12.5).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옷 입으셨음을 모든 성경이 선언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짓이다. 곧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Inst.* 2.12.4).”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가 ‘육신’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시안더는, 칼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성육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작정 문제를 연관하여 재강조한다. 칼빈은 지적하기를 오시안더의 경우, 만일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그 심중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야만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다(*Inst.* 2.12.7).

이에 대해 칼빈은 “만일 아담의 의가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천사처럼 하



나님과 비슷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또는 천사가 되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한다. 즉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다.

오시안더는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서가 아니라 첫 사람으로서 나시도록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지고 마셨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역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신 것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nst.* 2.12.7).

이에 대해 칼빈은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비밀 곧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었음과(히 4:5) 둘째 아담(고전 15:47) 또는 아담의 자손으로(눅 3:38) 오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시안더를 반박한다. 이것은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을 구원 문제와 연관하여 해석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오시안더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몸으로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만일 그리스도가 타락 후 아담의 몸을 위하셨다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이나 전형으로 창조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이, 비록 직접 “육신” 문제로 오시안더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구원문제 중심으로 오시안더를 비판함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했다고 본다.

그리고 오시안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를 작정문제와 연관시켜 설

명할 때, 그의 발언이 만세 전에 이루어진 속죄언약(贖罪言約)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그를 비판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의 발언을 보면 오시안더는 속죄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오시안더의 작성 발언에 대한 칼빈의 비판은 부분적으로 속죄언약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벨이 인간론에서 오시안더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신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와 성육신론이 전제 되는데 왜 벨이 오시안더의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 3. 칼빈의 오시안더 구원론 비판

#### 1) 칼빈의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義)'의 해석과 비판

칼빈은 오시안더가 “본질적 의”(essentialis iustitiae)라는 이상한 개념을 동원하여 칭의론을 설명하는 것에 주목한다(*Inst.* 3.11.5). 칼빈은 우선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義)의 개념이 인간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문제임을 간과한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에 대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義)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품성 모두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 본질적 의에 대한 이해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인간 속에 내재하는 문제와 관계함을 암시하며 오시안더의 발언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것이다(*Inst.* 3.11.5).” 칼빈이 보기에는 “그(오시안더)가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오로지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꺾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Inst.* 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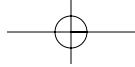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성경에 근거하여 열거함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오시안더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니(골 2: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성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제했어야 옳았다(*Inst.* 3.11.5).”

유감스럽게도 칼빈은 오시안더의 삼위일체의 거함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존재론적이며 범신론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그때는 아직 이런 용어가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칼빈의 오시안더의 칭의 방법의 해석과 비판

### ① 본질의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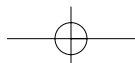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이해하는 관건은 ‘본질의 혼합’이다. 칼빈에 의하면 오



시안터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연합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터의 경우 그 연합의 방법이 본질의 혼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본질의 혼합을 주장한다 … 하나님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주입시켜서,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만드신다는 것이다(*Inst.* 3.11.5).” 다른 말로, 칼빈은 오시안터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하나 됨을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 속에 주입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한다. 즉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뒤섞여 짐을 통해 하나로 된다는 것이다 (*OS* 4.186.5).

칼빈은 오시안터의 이런 주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를테면 칼빈은 오시안터의 경우 칭의도 본질의 혼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주목한다. “즉 우리가 중보자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 중보자 안에서 의가 단순하게 혹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연합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OS* 4.186.28-31).” 다른 말로,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터의 경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롭다 칭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품성 모두를 주입(注入)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OS* 4.186.14-5).”

나아가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터의 경우 성화를 설명할 때도 본질의 혼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라나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혼합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Inst.* 3.11.5).”

칼빈은 오시안더가 본질의 혼합을 통해 하나로 뭉을 주장한 것에 대항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영의 은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Inst.* 3.11.5)”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비판한다. 칼빈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관계적인 반면에 오시안더의 혼합 이론이 범신론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함을 통해 그의 비판은 무언가 미흡함을 보인다. 사실 오시안더와 칼빈의 차이는 신학체계의 차이이다. 전자가 존재론적이고 범신론적이라면, 후자는 관계론적이다.

## ②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칭의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오시안더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신 것은 그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다(*Inst.* 3.11.8).” 칼빈에 의하면, 오시안더는 칭의를 ‘의롭게 하신다’로 설명하기 보다는 ‘의롭게 만들다’로 설명하는데(*Inst.* 3.11.6), 이처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이다. 칼빈은 지적하기를 오시안더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것을 약속하는 예레미야서 51:10, 23:6, 33:16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주장함을 주목 한다(*Inst.* 3.11.8). 칼빈은 오시안더가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강조하는 로마서 4:4-5과 8:33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함을 지적한다(*Inst.* 3.11.6).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오시안더가 말하는 본질의 혼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11.10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에 대해 논하면서 오시안더의 본질의 혼합에 의한 연합을 열거한다. “그가 본질적 의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내주(內住)하심을 그렇게 격렬하게 강변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로 그는 주의 성찬에서 주의 몸을 물질적으로 먹는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순정한 혼합물로 주입(注入)시키신다고 주장하며,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義)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시안더에 의하면 이 의(義)는 하나님 자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순결하심이라고 한다(*Inst.* 3.11.10).”

칼빈은 오시안더가 칭의 사건에서 그리스도, 우리, 믿음, 전가(轉嫁), 영적인 유대 관계를 일축하고 본질의 혼합을 통해 칭의를 시도했다고 본다. 오시안더가 이렇게 된 이유는, 칼빈에 의하면, 하늘의 생명을 현재의 상태로 그릇되게 왜곡 시켜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4)의 의미를 왜곡했기 때문이다(*Inst.* 3.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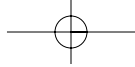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오시안더의 이런 주장을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논한다(*Inst.* 3.11.9).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의(義)에 근거해서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다고 말함을 통해 오시안더의 신성에 의한 칭의 곧 본질의 주입에 의한 칭의를 비판한다.

그런데 칼빈은 오시안더의 사고방식이 범신론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내놓는다고는 밝히지 못한다. 사실 오시안더의 주입(注入) 개념과 칼빈의 전가(轉嫁) 개념 사이는 패러다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자는 범신론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말이고, 후자는 관계론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 3) 오시안더의 본질의 혼합 이론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칼빈의 비판

칼빈은 먼저 오시안더가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했다(*Inst.* 3.11.6). “하나님께서는 그가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의를 배양하도록 만드신다. 그런데 오시안더는 중생의 선물을 이 값없는 인정하심과 뒤섞으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Inst.* 3.11.6).” 이 두 가지에 대한 혼동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칼빈은 오시안더가 우리 구원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역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의 신분 차원에서 다룬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nst.* 3.11.6).” 이것은 오시안더가 구원자의 사역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한 연고로 칭의와 중생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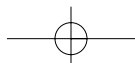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나아가 칼빈은 오시안더가 믿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함을 지적했다(*Inst.* 3.11.7). 칼빈은 오시안더의 주장, 곧 믿음 그 자체는 의롭다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의 명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Inst.* 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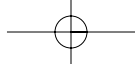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이에 대해 칼빈은 믿음을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설명하며,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은혜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동시에 그 은혜의 주인이시오, 그 은혜의 사역자임을 증거하며 오시안더의 그리스도와 믿음의 동일성을 반박한다(*Inst.* 3.11.7).

그리고 칼빈은 오시안더의 ‘본질의 혼합’ 이론이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한다(*Inst.* 3.11.11). “이중적인 의(義)를 구실로 하여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 하고 우리를 구름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또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될 불경이 아닐 수 없다(*Inst.* 3.11.11).” 즉 칼빈의 이런 비판은 오시안더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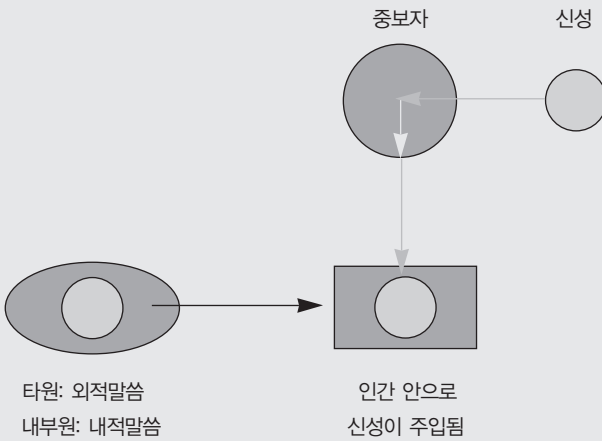
칼빈이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종합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그의 신성 곧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 속으로 주입해 들어가고 이 본질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이다. 칼빈은 여기엔 의(義)의 전가(轉嫁) 개념이 전혀 없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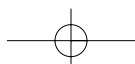
‘의롭다’ 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고 코웃음 침을 지적한다(*Inst.* 3.11.11). 오시안더의 주입이론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신성이 중보자 인성을 통해 죄인 속으로 들어오면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본질적 의 때문에 칭의 교리를 깊은 안개 속으로 휩싸이게 만들어서 경건한 사람들을 어둡게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한다(*Inst.* 3.11.5).

오시안더의 범신론적인 신학체계에 대한 칼빈의 비판이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은 성경이 깊이 이해하는 칼빈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후대 교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잘하고 있다



고 본다. 그런데 칼빈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락한 인간의 실존 문제 내지 자연인의 사고방식이 야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자연인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지구 어느 부분에도 이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천년의 교회사에 의하면 이단적인 칭의론은 결국 자연인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시안더를 범신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에드워드 벨의 해석이 현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오시안더의 칭의론을 비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간의 몸 안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것을 범신론적인 사건으로 규명했다. 사실 벨의 이런 지적은 2천년 교회사에 등장한 모든 범신론적인 이단들이나 신학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범위를 좁혀 한국 사회에 나타난 범신론적인 이단 중에 하나를 택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 4. 한국교회의 범신론적인 이단: 통일교

한국인들은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범신론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다.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모두 범신론적인 이단들이다. 우리는 위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표인 이단인 통일교의 구원 구조

를 분석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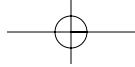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 1) 통일교 인죄론

통일교의 구원론은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그 몸속에 루시퍼의 내적인 요소 곧 양심의 불안, 그녀의 참 상대는 아담이지 루시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이 하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하와와 성관계를 맺은 아담의 몸속에 이런 루시퍼의 요소가 들어갔다고 한다. 통일교는 전자를 가리켜 영적 타락이라고 부르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을 육체적 타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 이 원죄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의 죄 개념이 범신론적이고 존재론적임을 볼 수 있다.

### 2) 통일교 구원론

이런 인간을 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일교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소위 탕감설로 해결한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일교는 로마서 11:7에 의거하여 인류 전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교접하여서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을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통일교의 경우 구원을 받을 사람은 문선명과 피 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범신론적·존재론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문선명의 피가 사람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피가 하와로 말미암는 원죄가 정결하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시안더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통해 주입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림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외에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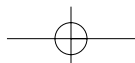
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박태선의 경우에도 범신론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생수(生水)란 지역별로 길가에 정렬해 놓은 우물 물통들 옆으로 지나면서 박태선이 축복기도 한 다음 획-하고 입김으로 축복하면 병 치료는 물론 죄를 사하는데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신적인 박태선으로부터 기운이 자연이라는 물속으로 들어가 효험(效驗)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동서를 막론하고 자연인의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유사한 오류를 범함을 인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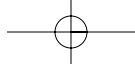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 5. 결론

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는 칼빈은 오시안더의 존재론적인 하나님 형상론을 잘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2) 칼빈은 하나님 형상과 관련하여 성육신을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이 설명한 오시안더의 잘못된 예수 이해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의 무기로 해서 매우 적절하게 비판했다고 본다.

3) 칼빈은 오시안더의 범신론적 ‘본질적 의’ 개념을 잘 파악했고 그것이 야기시킨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다. 그리고 본질적 의의 개념은 본질의 혼합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고 칭의 개념은 물론 성화 개념도 본질의 혼합으로 이루어짐을 간파했다.





4) 칼빈은 교회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범신론 이단들과 오시안더의 범신론적 사상에 유가점을 감지했다. 그런데 범신론적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비판할 수 없었다. 이는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 용어를 알고 있던 19세기 개혁파 신학자인 에드워드 벨이 오시안더 신학을 비판한 내용은 칼빈보다는 구체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신학이 범신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 이 신학에 대한 이해에서는 벨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칼빈이 오시안더를 비판한 내용보다는 에드워드 벨이 오시안더를 비판한 내용이 한국의 범신론적인 이단들 이를테면 통일교를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고 판단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칼빈의 후예인 에드워드 벨을 징검다리로서 삼아 칼빈이 비판한 오시안더의 신학체계를 도구로 삼아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오시안더의 신학체계는 통일교의 사상 체계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일교를 비판할 때는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시도하는 일은 피상적으로 보인다. 이들의 사상 구조의 위험성을 알람을 통해 더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09년 10월 30일 제4차 종교개혁기념세미나 강연 내용 -

